

送年座談

多事多難했던 辛酉年이어, 아뵊 /

◇ 日 時 : 1981년 12월 4 일 하오 3 시

◇ 場 所 : 大韓石油協會 會議室

◇ 參席者 : 趙 源 天 (油公 · 業務開發部長)

裴 男 洙 (湖油 · 業務部長)

金 仁 泳 (京仁에너지 · 業務部長)

李 永 祿 (雙龍精油 · 業務部長)

金 賢 培 (極東石油 · 業務部長)

◇ 司會 : 金泰允 (大韓石油協會 · 業務部長)

▲ 司會 : 하루 原油처리능력 78 萬배럴이라는 국제적 규모를 갖추고, 國內基礎에 너지의 30% 이상을 供給 하고 있는 우리 精油業界는 79年 第 2次 石油危機 이후 극심한 經營惡化의 몇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80년 에 약 4백 84억원의 결손을 낸데 이어 今年 상반기에만도 1천 8억원의 결손이 시현된 상황아래에서 오늘여 기 모이신 다섯 部長님들이야말로 会社の 최고경영층과 더불어 가장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낸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精油業界로서 多事多難 했던 今年 한해를 보내면서 今年의 정리를 결코 가벼운 心情으로 할 수 없는 여러 部長님들의 가슴은 감회가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되며, 이제는 지리하고 어두웠던 세월이 送年과 더불어 幕을 내리고 새해부터는 적어도 한가닥 빛을 기대할 수 있는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는 하고 싶고, 또 남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아주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어

떤 순서에 따라 進行하기 보다는 議題를 하나 하나 整理하는 의미에서 우선 原油문제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各社別 도입현황과 내년 계획은 어 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 趙源天 :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原油는 쿠웨이트 10萬배럴, 사우디 아라비아 10萬배럴(G·G베이스 10萬, 鮮京의 D-D베이스 1萬배럴포 함), 에콰도르의 오리엔테 低硫黃原油 1만 5천배럴, 말레이시아의 低硫黃原油 5천배럴등 하루에 22萬 배럴을 들여오고 있어요.

내년도의 도입예정량도 쿠웨이트 10萬배럴, 사우디 아라비아 10萬배럴, 에콰도르 1만 5천 배럴등인데 低硫黃연료공급계획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브르나이產 캄피언原油를 많이 추가해야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產 原油는 약간 가변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확보된 原油는 말레이시아를 빼면 23만 7천배럴이고, 말레이시아를 넣으면 더 增加할 추세예요.

그런데 來年에 우리가 팔 수 있는 量은 하루 21~22萬배럴 정도로 보고 있는데, 原油供給은 약 23萬배럴, 여기에다 추가로 5萬배럴이 현재 교섭중이므로 그것을 들여올 경우 28萬배럴이 꼭 잡니다. 그래서 原油공급사정만은 歷史上 유례없이 아주 좋습니다.



趙源天 부장

앞으로 油價가 單一化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原油사정은 지금 國內뿐만 아니라 世界的으로 공급과잉이에요. 특히 美 洲지역에서 消費가 약 4백萬배럴 줄었는데, 이 4백萬배럴이라는 규모는 自由世界의 웬만한 나라에서는 커버를 못해요. 전세계적으로 原油 도입량이 초과되니까 需給上 安定이 되고 그것이 價格의 安定을 가져오



는데 좌우간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需要보다 供給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原油사정은 안정은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른 次元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 李永祿 : 저희 회사는 현재 契約物량이 이란 NIOC와 하루 5萬 배럴이 되어 있는데 81년 실적은 4萬 1천배럴 정도입니다.

내년도 展望은 原油가 하루 5만 배럴정도 계속 도입될 전망입니다. 油公과 달라서 우리는 이란에서 導入하므로 이라니안 라이트나 헤비,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부자의 3가지 油種中에서 적당한 原油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金仁泳 : 저희 회사는 合作先인 UNOCO를 통해 1만배럴 들여오고 이 밖에 인도네시아 1만5천배럴에 파도르 1만 5천배럴, 베네수엘라 1만배럴등 모두 5만배럴인데 11월

말까지의 실적은 하루에 약 4만 1천 5백배럴을 들여왔습니다.

내년도 展望은 國際原油動向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物量 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京仁에너지는 1次 石油危機 이후 原油導入에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 현재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은 最高의 原油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原油導入先 多邊化政策에 적



金仁泳 부장

극적으로 호응한다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도 良質의 低油價 에너지를 도입할 예정인데 低硫黃燃料油 공급확대에 발맞추기 위해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低硫黃原油의 추가확보에 努力하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헨

딜原油를 저희가 직접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헨딜原油를 직접 처리할 계획입니다.

▲ 金賢培 : 저희가 輸入하고 있는 原油는 API가 17~20° 되는 아주 무거운 原油죠. 저희 회사의 수입량은 하루 7천 7백배럴 정도인데 저희 시설능력이 1만배럴 정도이므로 나머지는 방커C油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별다른 原油需給上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탱커가 고장이 나서 애를 먹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별다른 原油需給上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裴男洙 : 저희 회사는 두차례의 石油危機를 거치는 과정에서 合作投資先인 칼텍스가 原油導入에 보조를 해줘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6월에 38萬배럴의 公장을 완공했는데, 原油는 주로 사우

◎ 送年座談 ◎

디 아라비아에서 칼텍스가 들어올 예정이고, 정부의 低硫黃原油 도입 정책에 발맞추어 여기에 充當할 수 있는 原油를 인도네시아등에서 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原油확보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석유수요는 내년도에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 司會 : 여러 部長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현재 原油導入에 별문제가 없고, 내년도에 原油確保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올해에 계약물량을 다 쓰지 못하고 내년도에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아, 계약된 物量의 소비 자체가 수요감퇴로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需要減退가 금년에 各精油會社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내년도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豫見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타개책 또는 그로 말미암아 各社가 입게 되는 손실은 어떻게 되리라고 展望하십니까?

▲ 趙源天 : 올해 특히 불경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에너지節約으로 인해 需要가 줄어 들었는데 정책적으로 수요를 꼭 늘려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저회뿐만 아니라, 需要가 줄어들면 在庫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資金부담도 늘어나고 하는데, 在庫증가에 따른 자금부담이 제일 큼니다.

물론 在庫가 늘어나면 제대로 稼動을 못할 거고, 그렇게 되면 고정 투자는 많이 했는데 가동은 겨우 40~50% 정도 하면, 경영악화는 필연적인 것이지요. 저회 會社뿐만 아니라 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 金賢培 : 저회 會社는 다행히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昨年에 비해 금년의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需要減退로 인한 별다른 영향은 금년에는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 司會 : 京仁에 너지는 금년에唯一하게 흑자를 내고 있어서 業界에서 상당히 행복한 업체라고 보고 있는데 수요감퇴로 인한 영향은 어떤지요?

▲ 金仁泳 : 國內産業의 전반적인 景氣침체로 인한 需要減退는 있었고, 京仁도 지장을 받은 것은 틀림없죠. 油公과 같이 資金圧迫은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다행히 저희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社에 비해 그 고통을 조금 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引上時期죠, 가령 6% 引上要因이 발생하면 제때 해야지, 이것을 한달 늦추면 300億 원 가먹고, 두달이면 600億 원, 석달이면 900億 원...어마어마한 赤字要因이 누적되는 셈이니.”

내년도에도 需要의 급격한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금년과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精油業界는 지난 여름에 精油社間에 과다한 경쟁을 벌인 바도 있지만, 사실 得보다 失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景氣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은 지양되어야 하겠고, 새해에는 需要創出에 대해 精油社들이 共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司會 : 昨年부터 가동에 들어간 雙龍精油의 경우는 아마 今年의 수요감퇴로 인해 시장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 李永祿 : 정유사의 어려움은 需要減退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精油社 외에 韓電이나 三星같은 대수요처에서 직접 도입한 物量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증 정유사의 몫이 줄어

들지 않았나 봅니다. 더구나 저희는 新設會社로서 자연증가분도 없는 판매시장하에서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무척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去來條件의 악화 在庫累增으로 인해 자금부족이 일어나서 현재 저회 會社는 法定 최고한도인 1백80일까지 유전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까지 와 있는데 新設會社로서 실로 담담키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 襄男洙 : 저회 會社는 지금 시설규모가 38만배럴이 됐지만 현재 처리량은 20萬배럴이 안되니까 결국 15萬배럴은 그냥 남아 있는 상태지요. 저회 會社의 판매실적을 보면, 금년 1~11월 판매실적이 전년동기

에 대비하여 3%나 줄었어요.

▲ 司會 : 雙龍에 할애해 주는 것 같은데.....(웃음)

▲ 襄男洙 : 저회들 立場에서 보면, 정유공장을 짓는데 엄청난 투자가 소요됩니다. 3억달러나 들어 15萬배럴 증설해 놓고, 겨우 18萬, 19萬배럴이나 돌려 가지, 이렇게 팔아서 는 도저히 안됩니다. 油公은 실제로 판매량에 줄어든게 아닙니다.

▲ 司會 : 油公은 항상 마케팅會談을 할 때마다 雙龍에 가장 많은 시장을 할애했다고 主張하시는데...

▲ 李永祿 : 雙龍은 사실 가져간 것도 없는데.....지금 겨우 3萬배럴이 예요. (웃음)

▲ 趙源天 : 79년까지만 해도 저회의 판매실적은 꾸준히 늘어 왔어요. 79년부터 국내판매수요가 조금 줄었어요. 약 0.2% 정도 줄었는데, 油公

판매로 보면, 内需基準으로 약 12.7% 줄었어요. 즉 3만 3천배럴이 줄었어요. 작년의 内需총수요는 별로 줄지 않았는데 우리는 작년에 3만 3천 배럴, 즉 12.7% 줄고,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는 前年同期比 8.6%인 2만 1천배럴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油公은 약2년동안 79년에 비해 5만 4천배럴이 줄었어요.

▲ 司會 : 그건 차지로 얘기하는 건가요?

▲ 趙源天 : 아니, 세일즈로요. 그래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前年對比 총수요를 보면, 2.3% 정도 줄었는데, 輸出까지 포함하면 前年보다 조금 늘어난게 되지만 국내수요로만 보면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8.6%씩 줄고 나니까 우리차지가 지금 20만 8천배럴 밖에 안되니까 79년의 25만 9천 배럴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거예요. 그러면 내년 展望은 어쩌나 하면 이보다 더 줄 것 같아요.

▲ 裴男洙 : 우린 内需가 20% 줄었어요. 그럼 雙龍이 얼마나 잠식했다는 얘기냐.....(웃음).

▲ 李永祿 : 잠식할 부분은 없고, 수요감퇴현상이지요.

▲ 趙源天 : 우린 内需만 2.3% 줄은 거 같아요. 총수요로 보면 6.9~7.0% 정도 줄었지만, 内需기준으로 볼 때는 8.6%가 줄었어요. 우린 在庫가 많기 때문에 市場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결국은 줄었어요.

▲ 司會 :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序頭에서 밝힌 「밝은 82年度에 대한 기대」라는 것은 상당히 씩씩러운 표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國內油價는 금년 4월 19일에 약 15%, 그리고 지난 11월 29일에 약 6% 현실화되었습니다. 저희 石油



金泰允 부장

協會에서도 금년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政府에 대해 油價引上 要因이 발생하면 즉시 가격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왔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主張을 펼친 바 있는데, 금년 두차례에 걸친 油價현실화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적정치 않다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얘기해 보지요.

▲ 裴男洙 : 政府가 油價를 算定할 때는 적정한 선에서 다 알아서 계산을 하겠지만, 정유업계 전체 매출액이 年間 6조원, 그러면 한달에 5천억원인데 이번엔 6% 올랐으니 까 그 규모는 한달에 3백억원 정도입니다.



裴男洙 부장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引上時期예요. 引上要因이 있을때 인상시키는 그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해야지, 이것을 한달 늦추면 3백억원 까먹고, 두달이면 6백억원, 석달이면 9백억원.....이렇게 어마 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引上要因이 있을 때마다 그 時期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時期를 놓침으로써 引上要因이 자꾸 누적이 되서 문제가 발생한다 말이에요.

또 어떤 側面에서 보면 越冬期라 해서 못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가지 인상요인이 인정은 되면서도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시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政府측에서 하는 物價나 환율에측도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정확하게 다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측이 틀렸다고 인정이 될 때는 바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면, 지금처럼 精油會社의 손익이 1천억원이다, 2천억원이다 하는 친문학적인 숫자가 되도록 누적인 안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引上要因이 발생되면 時期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바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 李永祿 : 지금 裴部長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4.19 油價引上을 보면, 그 당시의 實勢에 밀도는 유전스利率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業界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왔던 게 사실이지요. 또 安定基金책정이 과소로 되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운운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基準價差額補填이 5~6개월씩 지연되는일이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융비가 발생하고.....또 油價책정시 판매에 상량을 과다책정해서 固定費가 과소반영된 것이 당상하지요.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라든가, 국내외차입금이 자라든가, 차입금환차손등이 과소반영되었어요.

그 다음에 11.29 油價引上을 보게 되면, 다음 追加引上時期가 未定인 상태에서 인상요인의 절반밖에 반영을 안한 것은 精油會社의 결손을 더욱 加重시키는 결과가 되었지요. 더우기 原油費관련비용만 5.5% 인상하고 실질적으로 그로스마진은 수송·저유비, 영업외수익등을 고려한 단지 0.5%引上에 불과했어요. 그나마 政府가 策定한 原價와 판매복합단가가 무려 5백60원이 차이가 나서 정제비가 높은 당사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司會 : 趙部長님, 油公은 지난번 11.29 油價調整으로 상당히 행복한 경지에 도달한게 아닙니까?

▲ 趙源天 :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싼 原油를 사오니깐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이 상당히 커요. 우리가 湖油와 똑같이 23만배럴의 原油를 사든 다해도 가격차이에 따른 금융부담이 2백 50억원에 이르고 있어요.

이번 油價調整에 대해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損益이 일단 문제가 되겠지만, 지난 79년 이후 原油價上昇에 따라 수차례 가격을 올렸는데 문제는 損益은 손익대로 악화된 상태에서 그냥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소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 雙龍처럼 1백 80일 턱에 차서 넘어가는 사태는 없을 거예요. 에너지값이 비싸면 우리 産業이 값싼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精油業界는 이익은 고사하고 원재료매입에 따르는 자금부담과 여기에 연유되는 커다란 빚을 무는 수로 갚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 油價引上도 그렇고, 지난번 油價引上도 그래요. 계산도 그렇게 됐고, 발표도 그렇게 됐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난 原油價의 引上

불만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고, 이번에 흑자를 실현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종합재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정유비가 적게 든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企業이 의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이번 油價引上도 정부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未洽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또 이번엔 油價管理制度를 조금 보완했는데 케널티부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유예기간도 없이 계약된 분에 대한 原油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湖油에서도 지적했읍니다만, 5% 인상요인이 발생 할 때 油價를 조정한다는 연동제도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시기를 놓치는 문제 말입니다.

“지난 79년 이후 原油價上昇에 따라 수차례 價格을 올렸는데, 문제는 損益은 손익대로 惡化된 狀態에서 그냥 머물렀다는 事實입니다. 앞으로는 資金負擔을 輕減시키는 것을 油價政策의 主眼으로 삼아야……”

그러다가 보니 各精油社가 모두 자금사정이 악화됐어요. 우리의 경우 79년에 유전스는 60일에 이상환 외 환잔액이 3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유전스기간이 1백 50일에 육박하고, 또 유전스잔액도 11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만의 問題가 아니고, 湖油도 이번엔 시설확장하느라고 追加資金부담이 있어서 어렵고, 雙龍은 雙龍대로 소규모로 갖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안고 있는 問題 외에 신규시설에 대한 어려움을 안고 있어요. 뭐 京仁이라고 해서 뾰족하게 나온 것도 없을 거예요. 結局 外換단기차입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에너지 코스트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精油社가 외화차입금과 같은 資金부담을 경감시킬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利益을 내서 그것을 내려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앞으로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어요.

만일 原油價가 이렇게 안정됐을 때에 이익을 많이 내서 자금부담을 다소 줄여주면 다음 2~3년 후 사

部分만 커버하는 것으로 돼 있지, 근본적으로 利益부분은 반영돼 있지 않아요. 油價인상시기가 자주 지연되다 보면 精油會社가 몇개월 손해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外貨단기차입금이 높음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값비싼 제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수출경쟁력과 경제체질을 약화시키는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油價에 관한 것은 정부가 보다 과감히 정유회사의 資金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油價政策의 主眼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原油價가 안정되었을 때 얼른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못 살릴 겁니다.

▲ 司會 : 趙部長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京仁은 현재까지는 아직 흑자죠? 이번 油價조정으로 더 좋은 경영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金仁泳 : 사실 우리 會社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株主들은 아직 한번도 배당을 못받았기 때문에

▲ 司會 : 정부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今年에 두차례에 걸쳐 油價를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精油業界가 받아들여기에 적절하다고 대답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油價引上에 대한 국민들의 反應은 상당히 감작적인 방향으로 치닫는 감이 있어요. 精油社에 대한 評은 이성을 넘어서서 原色的인 표현마저 보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油價 문제는 영원히 풀수 없는 숙제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石油문제에 관해 「價格의 自由化」라는 말이 나왔고, 또 금년에 들어와서는 「業界의 自律化」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로 구체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에너지政策當局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과연 油價管理制度는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지요.

▲ 趙源天：原油價平準化制度는 지난 79년에 국제원유가격이 다원화되었을 때 도입했지요.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그 제도를 잘 도입하여 크게 성공했습니다. 정부가 最高價格을 告示하여 정유회사가 다소 경영의 어려움을 있었지만, 소비자 에 대한 공급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측면에서 큰 충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日本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自由價格制度로서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지금도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동안 油價管理面에서 정부고시와 油價平準化제도가 이룩한 공로는 참으로 큼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原油價가 높아지고, 精油社의 油類판매액이 6조원에 이르고, 또 原油를 들여오는 소스와 회사가 많아지니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자율화 論理인 것 같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겨 自律化하자는 데에 대한성입니다. 그러나 저는 日本이나 다른 外國이 자유화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아 먼저 原油價가 안정될 전망이 보인다는 가정하에서 油價自律化가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전제로 하여 油價管理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봐요.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油價平準化制度는 국내 油價를 안정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화는 하되 또 다시 석유패기가 있을 때에는 즉각 발동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한 例로 油價를 자유화할 경우, 우리가 영월지역에 가서 3배 받고, 도십지역에서 京仁의 반값으로 팔면 京仁이 무슨 수로 살며, 雙龍이 살아 남겠어요. 나쁜 마음 먹으면 한꺼번에 시장을 칠 수도 있고.....

▲ 司會：價格自律化문제는 현재

“價格自律化문제는 原油價單一化 추세와 계속적인 安定導入이 가능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時期와 非常時에 대비한 補完策을 강구하면서 漸進的으로 추진해야.....”

原油價가 單一化되어 가는 추세에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과제이고, 또 原油의 계속적인 안정도입이 가능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될수 있으며, 앞으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어떤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趙源天：보완조치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무리지으면서 나갈 수 있는 단계적으로 移行되는 과정이죠.

▲ 司會：原油價는 지금 平準化 추세로 가고 있으니 原油價에 큰 차이는 없을테고, 그렇게 가격의 자율화가 이루어질 경우 精製費에서 유리한 企業과 불리한 企業과의 격차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趙源天：정제비 정도 가지고는 그게 실현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센 쪽이 밀어 버리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살지 못하게 됩니다.

▲ 李永祿：가격자율화라고 하는 것은 趙部長님도 말씀하셨듯이 原油 정제비, 需給의 3가지 측면이 동시에 안정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정적인 原油확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原油價는 平準화가 아닌 單一化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정제비측면에서보면, 신 증설회사의 고정비부분이 경감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에 따른 별도대책이 수립된다는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時點.....이 정도가 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立場은 이 기회에 정제비도 原油처럼 平準화시켜서 新設會社도 共生共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油價自律化는 다소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李永祿 부장

▲ 金仁泳：政府의 경제운용방식이 民間主導型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에서 볼때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격을 자유화시킨다는 데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時期가 문제인데요. 정부가 이런 검토를 하게 된다는 OPEC에서 油價單一化가 됐고, 현행 油價管理制度 자체가 다원화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政府에서 얘기하는 대로 연간매출액이 6조원에 이르는 石油類價格을 정부에서 이리 저리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왔고 또 그런 시대도 지났다. 그러니까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해서 정유사간에 경쟁을 촉진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경영능력을 증가시킨다는 理論에서 볼 때는 당연히 정부에서 그렇게 할만 합니다.

그러나 現行 油價平準化制度를 급격히 변경시키는 것은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국제원유시장동향이나 국내여건의 성숙도를 바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追加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떤 油價體制下에서도 多邊化原油도

입에 대한 추가원유비보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金賢培** : 저희도 거의 비슷한意見입니다. 갑자기 自律化하여 가격을 풀어 버리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또 OPEC 油價가 單一化됐다 하더라도 API레이트別로 보면 가치비율에 따라 單一化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가격자유화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 **司會** :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얘기는 여전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니깐 당분간 그대로 告示價格체제를 유지하고 그때 그때 引上要因이 있을 때는 즉시 油價에 반영을 해서 인상요인의 누적이 가격으로 전가되는 악순환만 제거된다면 현행 告示체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그럼 精油業界가 모여서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趙源天** :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관리하는 主体가 정유업체나 아니면 정부차원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石油協會로 이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 **李永祿** : 저도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石油協會에 이양하는데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作業만 石油協會에서 하고 정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고 다시 조정한다든가 하는 거기에 열쇠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어느 時期까지는 정부가 계속 손대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 **金賢培** : 지금 政府에서 하고 있는 油價管理制度를 石油協會에 이양했을 때 各精油社의 利害가 상반



金賢培 部長

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協會에 이양시켜서 協會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式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司會** : 저희 協會는 지난 해 7월에 업무를 개시한 이래 1년 3개월을 보냈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생각해도 會員社를 위해 무엇 하나 보람있는 과업을 하지 못한채 후회스런 한해를 또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會員社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내년 부

기에도 측면에서 평가받기 보다는 國民의 정유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정적인 측면에 상당히 치우치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국제원유가의 인하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유가를 인상해야 한다는데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고 精油社들이 자체 흡수노력을 소홀히 하고, 방만하고 안이한 경영을 해온 결과라고 매도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우리 精油社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 原價引下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 국민이 기업을 신뢰하고, 또 企業이 자부심을 갖고 국가경제를 이바지할 수 있는 풍토조성에 힘써 주시길 당부합니다.

▲ **李永祿** : 저도 동감인데요. 정유업계의 弘報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특히 정유업계에 대한 對國民弘報活動이 強化되어야 합니다. 消費者들은 국제원유가의 引下추세에서도 國內油價를 引上해야 한다는 必然性을 理解하기 어려운 듯한데……”

터는 정말 新生兒의 티를 벗고, 진실로 회원사를 위해 조그만 것 하나라도 성취하는데 熱과 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金賢培** : 協會가 발족한 이후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協會가 主体가 되어 해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協會에 바라고 싶은 것은 관료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외국환은행들이 商工部로부터 수입인가업무를 이양받았을 때 그런 폐단이 많았지요. 현재 協會가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 **金仁詠** : 앞으로 協會에서 정부와 精油社間의 교량역할을 보다 활발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유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는

는 생각입니다. 특히 정유업계에 대한 對國民弘報활동이 강화되어야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잘해 왔지만, 회원사간의 협조가 좀더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앞으로는 여러 企劃이나 조사업무가 內實化되어 協會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趙源天** : 우리가 石油協會를 만든 취지도 그렇지만, 協會는 정유 5社가 만나는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할때 協會는 그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해요.

▲ **司會** :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 여러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